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안군협의회, 김장 나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안군협의회(회장 양복임, 이하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3일 백운면 상동마을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11개 읍면 적십자 봉사회원 60여 명이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가 관내 취약계층 200여 세대에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진안군 적십자봉사회는 매년 추석명절에도 취약계층에 쌀 나눔 행사를 가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양복임 회장은 “매년 봉사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담근 김장김치를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늘의 행사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3일 산내면 작은 청소년 배움터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불나면 대피먼저 강조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및 소화기 사용법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통화 등 다채널을 활용한 119 신고법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 불조심을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제는 화재안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절지에 직접 그린 포스터(1인 1작품)를 접수하면 된다.

자격은 남원 관내 초등학생으로 신청서를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12월 초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해 전리복도 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태권도, 내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여자 65세 초과 부문 우승자 호주 브론원 버터워스

“건강과 내 몸 방어를 위해 시작한 태권도가 내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이하 품새 오픈 챌린지)가 5일 종료한 가운데, 일반부 여자 65세 초과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한 호주 브론원 버터워스(68세)의 말이다. 브론원 버터워스는 이번 우승으로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 우승자가 되었다.

68세의 나이에 품새 오픈 챌린지에 참가한 그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태권도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폐부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 대회’ 65세 이하급에서 우승, 2022년 고양 WT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공인품새 개인전 65세 초과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태권도를 시작할 때는 내 건강 관리와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제 태권도 수련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며 향후 많은 대회에 참가해 최고령 우승자의 타이틀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미시지 테라피스트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브론원 버터워스는 “태권도를 통한 건강 유지가 지금도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이라며 “호주에서 태권도는 인기있다. 코로나 이후 점점 더 수련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품새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권도원 개원 이후 두 번째 방문이라며 “태권도원이 개원한 2014년에 한번,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찾은 태권도원에서 우승까지 해 기쁘다”며 “태권도원은 공간 구성 등 태권도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며 향후 많은 대회에 참가해 최고령 우승자의 타이틀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주최하고 태권도 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가 주관해 21개국 507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경찰서, ‘Touch On Pol’ 캠페인 실시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정읍시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실시한 지구촌어울림당 행사에 참여하여 ‘Touch On Pol’ 캠페인을 진행했다.

‘Touch On Pol’ 캠페인은 정읍경찰서에서 사전지문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체 시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실증신고 접수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보호자 인계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호자들이 사전지문등록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문등록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긍정양육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금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최우수상’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센터(해피해피 노래교실)는 지난 3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전디광장에서 열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제13회 평생학습현미당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행해오던 프로그램 종우수 프로그램 회원들이 참가해 함께 즐기며 자웅을 겨루어 보는 시간이었다. 17개의 팀이 각자 노래, 체조, 낚타, 농악 등 각자의 장르로 최고의 무대를 펼쳤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는 금산면 해피해피 노래교실에게로 돌아갔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히 올해 축제는 청소년들이 관내 교육 기관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축제 하나하나를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시 검산동 주민자치위, 선진지 견학 나서

김제시 검산동(동장 송영애)은 지난 3일 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철)와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역량 강화 및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견학 일정은 그랑꼬또 위너리 체험, 바다향기 수목원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